



권성 위원장, 국방대학교에서 특강



권성 위원장은 9월 26일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바다·사막·강·숲의 지정학적 의미”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권 위원장은 국경선인 사막, 강, 산맥, 숲, 바다를 비교하며, 그 중에서 바다가 분리선(分離線), 전장(戰場), 무역로(貿易路), 약탈로(掠奪路), 병참선(兵站線), 자원(資源)의 기능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는 국경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군사적 팽창과 패권국가를 추구할 수도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치(法治)에 의해 이루어진 ‘자강(自強)’과 함께 신뢰와 호혜로 연결된 주변국의 ‘환상동맹(環狀同盟)’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임 중재위원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



위원회는 9월 21일 서울을 필두로 24일 광주, 25일 부산에서 각 중재부의 신임 중재위원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오광건 사무총장이 위원회 일반현황을 소개하고 각 본부장이 조정중재심리 절차, 본부별 업무 등에 대해 보고를 한 후, 위원 직무와 관련된 간담이 이어졌다.

위원회 사회공헌단, 창인원에 후원물품 전달



위원회 사회공헌단은 9월 26일 경기도 양평군 소재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창인원을 방문해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후원물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나눔의 손길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 창인원 이경학 대표이사, 네 번째 오광건 사무총장)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 신설

위원회는 9월 24일부터 손해배상사건을 전담하는 서울 제8중재부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는 증가하고 있는 손해배상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설치됐다.

제8중재부 중재위원은 기존 서울 7개 중재부 위원 중 5인으로 구성됐다. 중재부장은 장현우(서울 제1중재부) 위원, 중재위원은 박성희(서울 제1중재부), 권일(서울 제2중재부), 박인협(서울 제3중재부), 이영진(서울 제5중재부) 위원이 맡았다.